

# 도민이 만드는 무대 '우리들의 버킷리스트'

전주 문화공간이룸,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21일 첫 공연

전주 '문화공간이룸'의 지역민 참여프로그램인 이룸오픈데이 '우리들의 버킷리스트'의 출연자와 각 출연자들의 공연날짜가 확정돼, 문화공간이룸이 공연장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들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공연은 오는 21일 열린다.

전북도 문화관광재단의 소극장 지원사업에 선정돼 '문화공간이룸'이 추진하는 우리들의 버킷리스트는 전북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실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장르 불문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표현하여 예술적 가치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이 구현해내고자 하는 무대를 공연장과 협의하고 함께 기획하여 완성하고, 직업적인 문화예술인이 아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재능을 가진 전북도민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가족, 친구, 연인 등 출연의 제한 없이 다채로운 무대를 전북도민들이 직접 누릴 수 있다.

제한 없는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6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된 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협의한 끝에, 출연자들과 각 출연자들의 공연날짜가 확정됐고 문화공간이룸에서 꿈의 무대를 만들 출연자와 공연 날짜는 다음과 같다.

21일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음치와 같은 사람도 취미를 즐기고 열정적으로 음악적 소통을 하는 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음치' 팀의 노래와 토크쇼 공연이, 9월 14일에는 시너지 책쓰기 코칭센터의 17기 작가들이 '우리는 작가' 팀의 강연과 공연, 그리고 토크콘서트 가 선보여질 예정이다.

9월 15일에는 같은 학교 선배로 만나 석사과정을 함께 의지하며 준비해온 '한새미'이정민 피아노 듀오 콘서트 팀의 피아노 공연이, 9월 16일에는 마흔에 도자기를 시작해 자신을



이룸오픈데이 '우리들의 버킷리스트' 포스터

돌보는 마음으로 흠을 만진다 강경희님의 '강경희 도예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17일에는 어떤 색이든 곁에 잘 녹아드는 하얀색처럼 장르에 한계를 두지 않고 다채롭게 어우러지며 음악 예술 자체를 사랑하는 팀이 되고자 하는 '하얀' 팀의 클래식 공연이, 9월 18일, 피아노 연주가 버킷리스트였던 아마추어 성인 연주자들과 아이들로 구성된 'Rainbow Music' 팀의 연주 공연이 무대에 올라갈 예정이다.

또한 10월 4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야간반에서 판소리 우리가락을 배우고 있으며 무대에 올라 우리가락 판소리 한가락 완창의 꿈을 소망하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판소리반 콘서트' 팀의 판소리 한가락과 민요 발표 공연이,

10월 5일에는 세대는 달라도 배움을 사랑하고 봉사를 실천하고자 모였다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민요반 화우들로 구성된 '따뜻한 동행' 팀의 국악과 시 낭송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6일 전주 출신으로 전주에서 독주회를 열어 보고 싶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을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이나현님의 '이나현 피아노 독주회' 피아노 공연이, 10월 7일에는 우리가 거꾸하는 공간(지역)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행복한 연주를 하고자 하는 'Two&Two' 팀의 피아노 공연이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10월 20일에는 전주예치과 원장, 의사랑음사랑의 회원이자 전라북도 치과사합창단 무지카텐탈레의 단원인 강경찬 원장의 '네너 강경찬-passion' 독창 공연이, 10월 21일에는 카네기의 전북지사장이자 시너지책쓰기 코칭센터의 대표인 유길문 지사장의 '유길문 콘서트' 공연이 확정됐다.

공연 시간은 공연 요일이 평일일 경우 오후 7시 30분에, 주말일 경우에는 오후 5시에 시작하며 모두 전주 '문화공간이룸'에서 열린다.

연주, 인생 이야기, 작품 소개, 전시, 토크쇼 등 다양한 주제로 '우리들의 버킷리스트'의 참가자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출연자들의 자유로운 소망의 실현과 어느 것에도 국한되지 않은 다채롭고 행복한 무대를 꾸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정 이사장은 "이번 이룸오픈데이 우리들의 버킷리스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지역민들이 걱정 없이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출연자들이 행복하게 무대를 즐기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문화와 함께하는 삶을 만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무대에 꿈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보내주시는 많은 성원에 무한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달이 지는 밤' 9월 22일 개봉 확정

무주를 떠난 사람들 · 남은 사람들 ·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담은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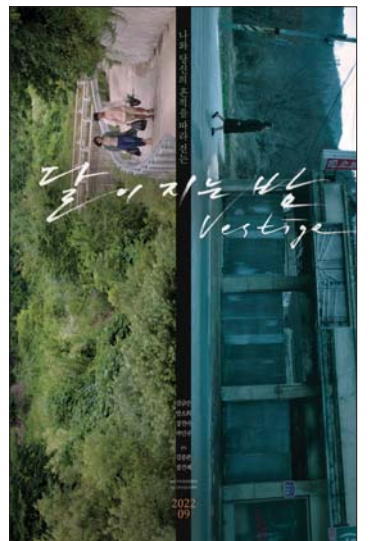
올가을 당신을 아름답게 위로할 영화 <달이 지는 밤>이 9월 22일 개봉을 확정하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위로에 관한 아름다운 영화 <달이 지는 밤>이 9월 22일 개봉을 확정하며 상반된 분위기의 두 이미지를 세로 대칭으로 특별하게 완성한 메인 포스터를 처음 공개했다. <달이 지는 밤>은 무주를 떠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담은 영화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나와 당신의 흔적을 따라 걷는'이라는 카피 문구와 어울리는 분위기의 영화 속 두 장면과, 초록과 파랑의 서로 대비되는 색감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포스터 왼쪽 컷에서는 초록 숲이 무성한 시골길을 두 남녀가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포스터 오른쪽 컷에서는 푸른빛이 감도는 어스름한 동네 어딘가를 한 여자가 혼자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김종관, 장건재 감독이 하나의 공간을 배경으로 각각 그려낸 두 이야기, 두 개의 세계가 과연 어떻게 한 편의 영화에 담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더욱 궁금하게 한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접한 영화 포스터들과는 달리 세로 대칭적 구조로 완성된 이번 <달이 지는 밤> 메인 포스터는 새롭고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 같은 듯 다른 두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조화를 기대하게끔 표현되었다. 이번 포스터는 영화 <범죄도시2>(마녀),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그해 우리는) 등 국내 유명 영화 및 드라마의 포스터와 타이틀을 디자인한 '스튜디오 프로파간다'가 맡아, 더욱 도전적이면서 예술적인 포스터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 <달이 지는 밤>은 <조제>(더 테이블)의 김종관 감독과 <괴이>(한여름의 판타지



아)의 장건재 감독이 함께 연출을 맡아 개봉 전부터 독특한 컬래버레이션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영화와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금순, 안소희, 강진아, 박민규 네 명의 주연배우들이 이 영화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를 모은다.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지원으로 제작된 <달이 지는 밤>은 이미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로부터 호평을 받아 올가을,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이 가장 주목할 작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봉 날짜와 메인 포스터를 전격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개봉 준비에 박차를 가한 <달이 지는 밤>은 9월 22일 개봉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남원아트센터,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계 전시전 개최

9월 12일까지 하반기 정식 개관 앞두고 첫 전시 '그리움 이고 싶다.'

남원아트센터는 하반기 정식 개관을 앞두고 첫 전시 '그리움 이고 싶다.'를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밀레니엄(2000년) 세대를 맞이하기 이전,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를 이끌었던 세대가 즐겨 사용한 추억의 작품들로 구성,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난 카메라와 전화기, 옛 남원의 빛바랜 사진들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불잡아 과거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

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남원아트센터 관계자는 "나만의 필름 카메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이용해 보는 것도 전시회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라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작품들을 구경하다보면 아련한 그리움들이 마음에 일렁이게 되고 추억의 향수를 느끼는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원아트센터(063-634-220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수군, '건반위의 채색 by 몬드리안' 공연 성황리 개최

장수군이 한 여름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군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누리 전당에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2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연 중 '건반위의 채색 by 몬드리안' 공연이 개최됐다.

이 공연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사)예술담은나리의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공연 전 미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들이 직접 피아노 건반

을 분해하고, 채색하며 피아노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그 피아노로 작품을 연주하는 행위예술과 소리예술의 융복합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전했다.

군은 이번 공연 이후에도 오는 8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인 '물 위에 핀 예술꽃 향연'을 의암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칠 예정이며, 9월 15일에는 '미에스트로 B·T·S vs BTS' 공연, 10월 15일에는 '결혼식 그리고 음악회' 공연을 한누리 전당에서 진행해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